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의 타당화

김 은 주¹⁾ 김 정 일²⁾ 남 승 규^{3)†} 노 길 광⁴⁾

¹⁾우송정보대학 샵마스터경영계열

²⁾대전대학교 비즈니스통계학과

³⁾대전대학교 산업·광고심리학과

⁴⁾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이 논문의 목적은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사결정유형(general decision making style; GDMS) 척도를 국내에서 사용가능하도록 검토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판단과 선택의 기초가 되는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여러 나라들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밝혀진 GDMS 척도의 한국어판을 두 개의 연구를 통하여 검토하고 타당화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24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탐색적 연구로, 한국어판 GDMS 척도가 동일한 요인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알아 보면서 구성 타당도를 검토하고, 의사결정역량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한국어판 GDMS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적일관성 계수가 높았기 때문에 신뢰도가 확인되었고,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의사결정역량 요인들과의 관련성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성타당도,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연구는 215명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공분산구조모형분석을 사용한 확인적 연구로, 축약형 GDMS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20개의 문항으로 측정되는 5개의 요인을 상징한 축약형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항수를 줄였음에도 높은 내적일관성계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축약형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적합도도 확인되었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일반의사결정유형(GDMS) 척도, 의사결정유형, 의사결정역량, 축약형 GDMS 척도, 타당화 연구

† 교신저자 : 남승규, 대전대학교 산업·광고심리학과, sknam@dju.ac.kr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왜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주택을 구입하거나 배우자를 정하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한 것까지 다양한 판단과 선택을 행하며 살아간다. 사람들이 직면하는 수없이 많은 판단과 선택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용과 대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신블리 내려진 판단과 선택은 우리에게 재정적이거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문제해결을 아울러 의사결정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어왔다(남승규, 1999; Scott & Bruce, 1995).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맥을 같이하는 소비자의 정보처리과정의 가장 분명한 특성은 정보처리과정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택적 정보처리과정(selective information processing)이라는 점이다. 소비자는 정보처리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선택적인 행동을 취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어느 정도 관련되거나 관심 있는 제품군과 마케팅자극에는 자신을 노출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환경에서 제시되는 자극들 중에서 관심 있는 일부의 자극에만 주의의 초점을 두고, 자극에 주의를 하여 자극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 과정인 지각도 그 자체가 선별과정을 거친다. 더불어 기억 속에 저장된 지식도 자신의 의도와 신념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사용한다(남승규, 2009). 이처럼 소비자의 정보처리과정은 선택의 결과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선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보처리과정의 선택성이 나타나는 것일까? 선택적인 정보처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가치, 태도, 흥미, 취향, 습관, 의도 혹은 행동방식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의 영향 때문에 생겨난다. 이 연구는 여러 심리적 요인들 중에서 행동방식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의사결정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포함한 행동방식은 소비자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어떤 변수들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심사숙고적인 의사결정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처리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정보처리과정의 결과로 의사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의사결정방식에 따른 결과로 정보처리과정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의사결정방식을 분류해보고, 이런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서 소비자들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는 것은 일차적으로 소비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시장세분화를 위한 변수로 활용한다면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에 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을 포함하여 의사결정유형 자체를 파악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시도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비자 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소비자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들

(Loo, 2000; Mitchell & Flin, 2007; Gambetti, Fabbri, Bensi, & Tonetti, 2008; Osborne, 2010; Parker, Bruine de Burin, Fischhoff, 2007; Spicer & Sadler-Smith, 2005; Thunholm, 2004, 2008, 2009)의 근간이 되었던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Scott & Bruce, 1995)에 기초하여 한국어판 의사결정유형척도를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확인된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요인들을 의사결정역량척도를 구성하는 요인들과 상호 비교해봄으로써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론적 배경

“우리는 언제나 생각 없이 결정한다.”라는 말은 Harry Beckwith(2011)가 저술한 <Unthinking>의 핵심 주장이며 머리말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결정,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려 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바보처럼 보이거나 바보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는 결정, 경솔하고 무모한 행동을 한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은 힘들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끊임없이 엉뚱한 짓을 한다.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 이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한다.(pp.12-13)”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평범하고 익숙한 것에 대한 우리의 선호도가 너무나 강하고 흔한 나머지 생물학자인 Johan Koeslag (1994)는 ‘코이노필리아(koinophilia)’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평범하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코이노스(koinos)와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philos)에서 파생되었다. 직역하면 ‘평범한 것에 대한 사랑’을 뜻한다. 반대로, 무엇인가에 처음 노출되면, 생소하게 느껴지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한 방식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한다.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판단과 선택을 한다. 예를 들어, 스스로 자신을 “우수한” 문제해결자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에서 보다 더 많이 직관적이고, 조심스럽고, 진지하며, 체계적인 반면에, “열등한” 문제해결자들은 우수한 문제해결자들이 사용하는 이런 전략들을 덜 사용하고 충동성과 회피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전략들을 더 많이 사용한다(Heppner, Hibel, Neal, Weinstein, & Rabinowitz, 1982). 이제부터 사람들이 행하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에서 행동양식에 기초한 의사결정유형의 분류연구들에 관해 먼저 살펴보고,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한 다음에, 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척도의 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변수들 중의 하나인 의사결정역량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의사결정유형의 분류연구

의사결정유형은 개인이 의사결정상황에 접근하고 반응하고 그 상황에서 행위하는 독특한 방식을 말한다(Phillips, Paziienza, & Ferrin, 1984). 예를 들어,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체계적인 평가와 논리적 숙고와 같은 전략들을 사용하는 반면에, 직관적 의사결정자는 충동적

인 방식으로 그럴듯한 생각, 느낌, 그리고 정서적 자기인식에 의존한다. 또한 의존적 의사결정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위에 동조한다. 전통적으로 자기 자신을 효과적인 문제해결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에 자신감이 있고, 문제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높은 개인 통제감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

소비활동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의사결정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의사결정에 관한 폭넓고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어 왔다. 이런 열망에 부응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판단과 선택의 개인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남승규, 2005a, 2005b; Arroba, 1977; Harren, 1979; Johnson, 1978; Miller, 1968; Phillips, Paziienza, & Ferrin, 1984; Scott & Bruce, 1995).

예를 들어, Arroba(1978)는 의사결정유형을 특정한 의사결정에 접근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면서, 의사결정유형을 논리형, 주저형, 생각 없이 결정하는 형, 직관형, 감정형, 및 동조형을 포함하여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Harren(1979)은 의사결정유형을 의사결정과제를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개인의 특징적인 유형 혹은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라고 정의하면서, 의사결정자의 직업선택 행동유형을 합리성 유형, 직관성 유형, 및 의존성 유형을 포함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또한, Miller(1968)는 의사결정유형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모형, 확률적 통계 모형, 복잡한 정보처리 모형, 컴퓨터 의사결정 모형 등을 포함하여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였다.

Johnson(1978)도 자료수집방식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유형을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즉 흥형은 자신의 경험을 분절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총체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매우 빠르게 심리적으로 동조하고, 유연한 목표를 갖는다. 체계형은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각 부분에 적합하도록 분절하여 적용하는 수집적인 반응을 보이고, 심리적 동조에 있어서 의심이 많고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목표지향성을 갖는다. 외부형은 생각을 밖으로 내보인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밖으로 내보이지 않으면 자신이 그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한다. 내부형은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완전하게 정리되어야만 그것에 관해 말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침묵한다. 이런 4가지 특성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의사결정유형은 내부 즉흥형, 외부 즉흥형, 내부 체계형 및 외부 체계형으로 구분된다.

Phillips, Paziienza, 및 Ferrin(1984)는 의사결정이 자신과 개인의 선택안들에 대한 정보가 획득되고 처리되는 방식을 안내하는 전략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제안하면서, 의사결정유형을 합리형, 직관형 및 의존형으로 구분하였다.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은 결정 확신성과 결정 만족이 더 크고, 더 많은 활동들을 하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하는 능력도 더 많다. 이런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은 문제해결능력에 더 많은 자신감을 보이고, 문제

해결과제를 피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통제력 정도도 더 높다.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은 충동적이고 비체계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통제력이 낮고 회피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지만, 정서적 인식을 숙고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만족하는 방식에서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에 자신감을 보인다.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은 외부 현상에 책임을 부여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제한되고, 지각된 통제력도 낮으며, 문제해결과제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승규(2005a, 2005b)는 의사결정을 자기조절과 동일선상에 놓고서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조절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자기조절을 잘하는 의사결정자와 자기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자로 구분하였는데, 그 구분의 기준을 판단과 선택에서 오류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가 정도로 삼았다. 자기조절을 잘하는 소비자는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충동구매를 덜 할 뿐만 아니라 소비경험에 대해서도 훨씬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사결정유형을 체계적 유형, 직관적 유형 및 의존적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남순현, 2009). 체계적 유형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논리적 판단을 이용하고, 계획과 단계적인 접근을 지향하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 직관적 유형은 상상이나 느낌에 의한 의사결정을 즐기고, 예감과 직감을 이용하며, 창의적이고 즉각적인 접근을 지향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 의존적 유형은 타인의 도움이나 지지와 격려를 필요로 하고,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타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Eidles-Maoz(2006)는 의사결정유형을 지시형, 분석형, 개념형, 및 행동형으로 구분한 다음에 성격특성 중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알아보는 열중성과 얼마나 스스로 알아서 하는가를 알아보는 자발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분석형과 개념형 및 행동형은 열중성과 자발성 둘 다와 아무런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시형은 열심히 생활하는 정도와 부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최근에, Conteh(2009)는 의사결정유형을 사용되는 정보의 양과 고려하는 대안의 수에 기초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였다. 분석-자문형(analytic-consultative)은 사용하는 정보의 양도 많고, 고려하는 대안의 수도 많은 유형인 반면에, 분석-자동형(analytic-autocratic)은 사용하는 정보의 양은 많지만, 고려하는 대안의 수는 적은 유형이다. 간편-자문형(heuristic-consultative)은 사용하는 정보의 양은 적고, 고려하는 대안의 수는 많은 유형인 반면에, 간편-자동형(heuristic-autocratic)은 사용하는 정보의 양도 적고, 고려하는 대안의 수도 적은 유형이다. 정보와 관련하여, 간편형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정보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보탐색을 하지 않는데, 부가정보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만 도움이 되고 오히려 분산과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자료는 너무 늦게 받아보게 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분석형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광범위하게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보낸다. 대안과 관련하여, 자동형은 “만족주의자”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만족스런 해결안을 찾으면 탐색을 멈추고 그 해결안을 채택한다. 반면에 자문형은 다수의 혹은 부가적인 해결안을 탐색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대안들을 모두 고려한다.

일반 의사결정 유형

개인이 보여주는 의사결정방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되어진 의사결정유형의 분류는 Scott와 Bruce(1995)가 합리형, 직관형, 의존형, 회피형, 및 즉흥형을 포함하여 5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이다. 그들은 일반 의사결정 유형(general decision making style; GDMS)이라는 자기보고식 의사결정유형 질문지를 개발하였는데, 합리적인 타당성을 제시하면서 여러 후속 연구(Mitchell & Flin, 2007; Gambetti, Fabbri, Bensi, & Tonetti, 2008; Osborne, 2010; Thunholm, 2004, 2008)에서 사용되었고,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분류는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는 표본들로 진행된 여러 연구들(Loo, 2000; Parker, Bruine de Burin, Fischhoff, 2007; Spicer & Sadler-Smith, 2005; Thunholm, 2004, 2008)에서 확인되었다.

그들(Scott & Bruce, 1995)은 의사결정유형연구에 개념적 틀이 분명하지 않으며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자료를 종합할 도구가 존재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의사결정유형연구를 고찰한 것에 근거하여 그들은 의사결정유형을 “결정상황에 직면할 때 개인에 의하여 나타난 학습된 습관적 반응양식이다. 이것은 성격특질이 아니고, 구체적인 결정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습관기반성향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합리형(rational style)은 의사결정의 접근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구조적인 접근법과 대안들에 대한 논리적인 평가로 특성지을 수 있고, 두 번째 직관형(intuitive style)은 정보 탐색과 처리의 접근법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기 보다는 예감과 같은 미묘한 사항에 더 높은 주의를

보이고, 느낌과 인상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특성화되어질 수 있다. 세 번째 의존형(dependent style)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이 제시해 주는 방향이나 충고, 지원에 대한 믿음으로 특성화되어지고, 네 번째 회피형(avoidant style)은 가능하면 의사결정을 회피하고 연기하려는 것으로 특성화할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즉흥형(spontaneous style)은 가능하면 즉시적으로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을 얻고자하는 감정으로 특성지을 수 있다.

Thunholm(2004)은 Scott와 Bruce(1995)가 습관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유형을 정의한 것에 부가하여, 인지능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의사결정상황에 대한 반응을 추가하여 의사결정유형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만약에 의사결정유형이 습관과 달리 보다 기본적인 능력을 반영한다면, 의존형과 회피형은 결정상황 자체를 다루는데 있어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지각된 능력이 없거나, 회피형의 경우에는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 그는 군대의 장교들을 대상으로 일반지능, 자존감, 및 자기조절능력이 의사결정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의존형과 회피형은 자존감이 낮고 자기조절능력이 손상되었다. 특히, 의존형은 혼란스런 사고로 인해 정신이 팔려있지 않아도 심사숙고하는 사고과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회피형은 의사결정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능력이 낮았다. 하지만, 즉흥형은 이런 능력들과 관련이 없었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유형을 검토한 연구(Mitchell & Flin, 2007)에서도 다섯 가지 유형의 의사결정방식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

있으며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차이도 확인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유형별 반응 시간이 차이가 있었다. 위기상황에서 사전 정보의 특성과 유무에 따른 놀람 반응에서 가장 높았던 유형은 합리형이었고 가장 낮았던 유형은 회피형이었다. 그 사이에 직관형, 의존형, 그리고 즉흥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Parker, Bruine de Burin, 및 Fischhoff(2007)는 GDMS 척도를 이용하여 극대화자와 만족화자를 비교하였는데, 극대화 경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의사결정유형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극대화자들은 행동적인 대처를 더 적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존성이 더 크고, 의사결정을 더 많이 회피하며, 후회경험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예상과는 달리 극대화자들이 즉흥적인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만족화자들은 보다 우수한 의사결정역량과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unholm(2008)는 GDMS 척도에 기반을 두고 일관되게 행동상의 용어로 5가지 의사결정유형을 정의하였다. 합리형은 정보, 대안들의 항목 그리고 대안의 논리적 평가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특징이 있다; 직관형은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나 처리보다는 정보흐름내의 세부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감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의존형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 충고와 안내지침을 구하는 특징이 있다; 회피형은 가능하면 언제든지 의사결정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특징이 있다. 즉흥형은 의사결정을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느끼고 가능한 신속하게 의사결정과정을 처리하려

는 바람을 지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GDMS는 학생, 공학자, 기술자 표본으로 추가적인 타당화가 이루어졌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경력결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내리는가를 물었고 다른 표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물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들에서 유사하게 5개 요인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상호상관도 일관된 형태로 나타났다. 직관형과 즉흥형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합리형은 직관형, 즉흥형, 및 회피형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의존형은 회피형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Osborne(2010)은 의사결정유형을 “의사결정 상황에서 개인이 접근하고, 인정하고, 행동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면서, GDMS 척도를 사용하여 경영자의 일처리 방식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경영자의 목표지향성은 회피형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목표지향성이 합리형 경영자와 다른 유형의 경영자를 분리하는 변별지표이며, 회피형 경영자는 조직을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의사결정역량

의사결정역량(decision making competence)은 얼마나 의사결정을 잘 내리는가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적응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말한다. 적응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 편향 및 개인적 경향성을 관리하면서 목표지향적인 선택을 생성하고, 평가하고, 선택하고, 학습하는 것을 포함하는 자기조절과정인 것이다(Miller & Byrnes, 2001).

자기조절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높은 의사결정역량을 보이고, 의사결정역량이 높은 사람은 자기조절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들은 의사결정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의사결정의 오류를 이끄는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을 개발하고 실행을 촉진한다(남승규, 2005a). 예를 들어 지식이 부족할 때 지식을 갖춘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거나 개인의 충동성을 줄이기 위하여 자신과의 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역량이 높은 사람은 이전의 의사결정 과정속에서의 실수로부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평가·학습하고 그 다음의 의사결정 수행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자기조절과 관리 능력이 높은 사람이다.

또한 Hardingham(1989)에 의하면, 효과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각각의 결정에 확신을 갖고, 빈틈이 없으며, 열정적으로 접근한다. 그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마감시한을 맞추는 방법 그리고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 또한 그들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진지하게 의사결정에 직면하지만 판단과 선택을 내리는 것을 즐긴다.

Miller와 Byrnes(2001)는 의사결정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의사결정역량항목표(decision making competence inventory; DMCI)를 통하여 의사결정역량을 정보인식(informed awareness), 자기평가(self-appraisal), 자율성(autonomy) 그리고 확신(confidence)을 포함하여 4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의 척도를 보완하여 한국판 의사결정역량척도를 개발한 남승규(2005a, 2005b, 2011)는 의사결정역량을 크게 역기능적 의사결정역량과 순기능적

의사결정역량으로 구분하였는데, 역기능적 의사결정역량은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양해야 할 의사결정역량을 말하고, 순기능적 의사결정역량은 지향해야 할 의사결정역량을 말한다. 순기능적 의사결정역량은 다시 합리성과 확신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역기능적 의사결정역량은 다시 오류성과 의존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사결정유형과 의사결정역량은 각각이 행동경향성과 행동성향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역량은 의사결정유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유형에 따라서 의사결정역량의 관련 정도나 방향성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적어도 관계의 방향성은 의사결정유형에 따라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방식은 의사결정유형을 반영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Loo(2000)는 회피적 의사결정자는 갈등을 회피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회피적 의사결정유형이 회피적 갈등관리 스타일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즉흥적 의사결정유형의 개인은 갈등상황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연구문제

이 연구는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는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를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를 검토하고, 보다 간명한 형태의 의사결정유형척도를 제안하면서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가 국내에서도 일관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연구문제 2: 축약형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의 적합도는 어떠한가?

연구절차

242명의 대학생들에게 선행연구(Thunholm, 2009)에 기초하여 25문항의 일반의사결정유형(general decision making style; GDMS) 척도를 변안한 한국판 의사결정유형척도와 20문항의 의사결정역량척도(남승규, 2005)가 포함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척도는 Likert 식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두 척도 모두 최종적으로 요인구성을 할 때 기본전제인 “3문항 이상”의 조건(Crawford, 1975; Thurstone, 1947)을 충족하였다. 한국판 의사결정유형척도의 문항들은 일차적으로 연구자가 변안한 다음에, 두 분의 영문학과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한글판 SAS9.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정도를 알아보는 Cronbach의 α 계수로 검토하였다. 타당도는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그리고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검토하였다.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는데, 요인의 추출방법은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 method)을, 초기치는 다중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을, 요인축의 회전방법은 직교회전인 Varimax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1

연구 1은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는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반의사결정유형(GDMS) 척도가 한국판 의사결정유형척도로 적합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원본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변안한 한국판 의사결정유형척도의 문항들을 구성한 다음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방법

연구대상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은 남학생 96명(39.66%)과 여학생 146명(60.34%)을 포함하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242명의 대학생들로 18세부터 29세까지의 연령대를 보였고, 평균 연령은 20.57세(SD=2.20)이었으며, 월평균지출은 33.67만원(SD=13.23)이었다.

표 1. 성별과 월평균지출별 참가자의 사례수와 백분율

	남자	여자	전 체
평균지출 이하 집단	56(23.14%)	89(36.77%)	145(59.91%)
평균지출 이상 집단	40(16.52%)	57(23.55%)	97(40.09%)
전 체	96(39.66%)	146(60.33%)	242(100.0%)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상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의사결정유형척도와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의사결정역량척도의 4개의 요인들(오류성, 합리성, 확신성, 의존성)과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수렴타당도는 특정한 척도가 측정하는 구성개념과 관련이 있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구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일수록 수렴타당도가 좋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변별타당도는 무관하거나 반대되는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구하는 방법으로 상이한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일수록 변별타당도가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Predenberg, 1995).

결 과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신뢰도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본 알파 계수는 그 값이 $\alpha = .8230$ (표준자료의 경우엔 $\alpha = .8136$)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의사결정유형척도의 내적일관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척도의 신뢰도가 인정할만한 수준임을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결정유형척도의 타당도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

번안된 한국판 의사결정유형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행해진 선행

연구들(Gambetti, Fabbri, Bensi, & Tonetti, 2008; Loo, 2000; Thunholm, 2009)에 확인된 것처럼,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은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적합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의사결정행동을 나타내는 다양한 측면들을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면타당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섯 명의 전문가들이 이 척도가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는데 적합하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에 내용타당도도 입증되었다.

구성타당도

번안된 한국판 의사결정유형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회피형, 의존형, 합리형, 직관형, 즉흥형으로 명명하였는데, 선행연구(Gambetti, Fabbri, Bensi, & Tonetti, 2008; Loo, 2000; Thunholm, 2004, 2008, 2009)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한국판 의사결정유형척도의 구성타당도가 인정할만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첫 번째 요인인 “회피형(avoidant style)”을 구성하는 항목들은 “나는 압박을 받을 때까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한다.”, “나는 가능한 한 의사결정하는 것을 연기한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흔히 질질 끌며 미룬다.”, “나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마지막 순간에 내린다.”, 및 “결정을 내리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룬다.”를 포함하여 5문항이었다.

두 번째 요인인 “의존형(dependent style)”을 구성하는 항목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표 2. 일반의사결정유형(GDMS)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 1: 회피형					
Q19 나는 ... 가능한 한 연기한다	0.8572	0.0314	0.0569	0.0327	-0.06394
Q21 나는 ... 내리는 것을 미룬다	0.7722	0.1235	0.1370	-0.1686	0.12374
Q06 결정을 ... 마음이 불편해지기	0.6615	0.1877	0.1699	-0.2028	0.04227
Q14 나는 압박을 받을 때까지	0.6170	0.0851	0.0930	0.0782	0.07805
Q23 나는 일반적으로 의무가	0.4840	0.1376	0.0196	-0.0157	0.07845
요인 2: 의존형					
Q18 나는 ... 다른 사람의 도움을	0.1532	0.7834	0.1209	-0.0875	0.07259
Q05 나는 ... 다른 사람의 충고를	0.1142	0.7474	-0.1181	-0.0247	-0.05036
Q10 나는 ... 이끌어 주는 사람이	0.0007	0.7308	0.0614	0.0259	-0.01770
Q22 만약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0.1259	0.7134	0.0794	0.0434	0.07322
Q02 나는 다른 사람의 조언 없이	0.2255	0.5325	0.0022	-0.1686	0.06822
요인 3: 합리형					
Q13 나는 구체화된 목표와 ...	0.0872	0.0326	0.7329	-0.1663	0.22908
Q25 나는 ... 합리적인 근거를	0.1687	0.0895	0.6727	0.0356	0.12063
Q07 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0.0844	0.1884	0.6630	0.1071	-0.00036
Q04 나는 ... 꼼꼼하게 살펴본다	0.0547	-0.1430	0.5073	0.0665	0.26968
Q11 나는 ... 주의깊게 생각을 한다	0.1071	-0.0932	0.4844	0.0276	0.41984
요인 4: 직관형					
Q12 나는 나의 느낌과 반응을	-0.1334	-0.0980	-0.0720	0.7964	-0.09586
Q01 나는 나의 직관에 의존하는	-0.0762	-0.2381	0.0000	0.5821	0.15033
Q16 나는 나의 본능에 의존한다	0.0658	-0.0509	0.2628	0.5732	0.33271
Q03 나는 ... 옳다고 느끼는 것이	0.0498	0.1438	0.0650	0.4634	0.21022
Q17 나는 옳다고 느끼는 결정을	-0.1444	0.0053	-0.1131	0.3812	0.08524
요인 5: 즉흥형					
Q09 나는 일반적으로 성급하게	0.0656	0.0379	0.3254	0.2868	0.71019
Q24 나는 빨리 결정을 내린다	-0.0494	0.0556	0.1472	0.3503	0.58335
Q15 나는 충동적인 결정을 자주	0.2666	0.1599	0.2465	0.3982	0.55248
Q20 나는 ... 얼떨결에 결정을	0.3786	0.0896	0.2778	0.1852	0.50731
Q08 나는 처음 생각한 것으로	0.0267	-0.0159	0.0321	0.2313	0.06256
설명분산	2.8178	2.7786	2.3780	2.2753	1.9727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자주 필요하다.”, “나는 다른 사람의 조언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는다.”, “만약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쉬워진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구한다.”, 및 “내가 중요한 결정에 직면할 때,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를 포함하여 5문항이었다.

세 번째 요인인 “합리형(rational style)”을 구성하는 항목들은 “나는 중요한 결정을 조심스럽게 계획 세워서 내린다.”, “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이 맞는가를 확신하기 위해서 나의 정보출처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다.”,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주의 깊게 생각을 한다.”, 및 “결정을 내릴 때, 나는 구체적인 목표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안을 고려한다.”를 포함하여 5문항이었다.

네 번째 요인인 “직관형(intuitive style)”을 구성하는 항목들은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나의 본능에 의존한다.”,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나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일반적으로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결정을 내린다.”, “결정을 내릴 때, 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는 것보다는 그 결정이 옳다고 느끼는 것

이 더 중요하다.”, 및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나의 내적 느낌과 반응을 믿는다.”를 포함하여 5문항이었다.

마지막 요인인 “즉흥형(spontaneous style)”을 구성하는 항목들은 “나는 일반적으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다.”, “나는 자주 순간적인 충동으로 결정을 내린다.”, “나는 빨리 결정을 내린다.”, 및 “나는 충동적인 결정을 자주 내린다.”를 포함하여 4문항이었다.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처음 생각한 것으로 결정을 한다.”는 항목은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최소 요인인 .30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Thurstone, 1947),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제외되어야만 했다.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알아본 상관분석결과도,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모두 인정할 만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렴타당도는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일수록 좋은 반면에, 변별타당도는 상이한 특성을 측정하는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일수록 좋은 것이다.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의사결정역량의 의존성과 의사결정유형의 의존형은 가장 높은

표 3. 의사결정유형과 의사결정역량간의 상관

의사결정유형	오류성	합리성	확신성	의존성
회피형	0.3389***	-0.0861	-0.3555***	0.2759***
의존형	0.1946**	0.1019	-0.1558*	0.6780***
합리형	-0.4953***	0.6661***	0.3401***	-0.1745**
직관형	0.4223***	-0.1669**	0.3757***	-0.05472
즉흥형	0.7742***	-0.4215***	-0.0298	0.1912**

주: *p<.05 **p<.01 ***p<.001

정적 상관을 보이고, 의사결정역량의 합리성과 의사결정유형의 합리정도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그 정도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결정역량의 오류성과 의사결정의 즉흥정도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수렴타당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사결정유형의 회피형은 의사결정역량의 합리성과 확신성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의존형은 확신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유형의 합리형은 오류성과 의존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직관형과 즉흥형은 합리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의사결정유형척도의 변별타당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논 의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유형과 관련하여 이 척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여러 표본들을 대상으로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며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이기도 했지만, 내적일관성계수로 살펴본 신뢰도 검증 결과도 우수하였고,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그리고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타당도 검증 결과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의사결정의 질은 달라질 수 있을지라도, 의사결정방식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우리의 방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한국어판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실효성을 보

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가능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보다 신중한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처럼, 연령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연령대에 걸쳐서 이런 결과가 일관되게 도출될 수 있는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Thunholm(2009)의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는 그 순간에 당연하게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는 문항으로 대체된 문항이기는 하지만, “즉흥형”을 구성하는 문항 중의 하나로 예상했던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처음 생각한 것으로 결정을 한다.”는 문항이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게 나온 결과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의사결정유형의 분류연구가 소비자행동을 보편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지만, 분류만으로는 고객분석에 대한 이해와 마케팅적 실무에서의 활용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이나 차이를 밝혀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 2

연구 2는 연구 1에서 확인된 의사결정유형 분류를 위한 기본 틀과 항목들을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살펴보는 타당화연구이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는데, 첫째, 연구 1은 대학생들만을 포함하여 실시된 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한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1에서 얻어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25문항으로 구성된 현재의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즉흥형” 요인의 문항 중에 요인부하량이 낮아서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간명한 일반의사결정유형 척도인 축약형 의사결정유형척도를 제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종요인행렬에서 0.3 또는 0.4 이상인 요인계수가 3개 이상 발견되어야 그 요인을 해석하게 된다(이순목, 2000; Thurstone, 1947)의 오랜 지침에 따라서 기준에 미흡한 문항을 제외시킨 축약형 척도를 제안하였다.

(SD=9.92)이었으며, 직업은 교육분야(n=88, 42.92%), 서비스분야(n=45, 21.95%), 학생(n=41, 20.00%), 관리분야(n=26, 12.68%)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절차

대학생들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연령층에 해당하는 213명의 일반시민들에게 연구 1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사결정유형 척도와 의사결정역량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도 연구 1과 유사하였는데, 다른 점은 공분산매트릭스와 LISREL8.52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축약형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은 남자 69명(32.39%)과 여학생 144명(67.60%)을 포함하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213명의 대전시민들로 18세부터 56세까지의 연령대를 보였고, 평균 연령은 33.84세

결 과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신뢰도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본 알파계수는 연구 1에서 얻어진 결과보다 조금 더 높은 $\alpha=.8598$ (표준자료의 경우엔 $\alpha=.8537$)로 나타나서 다시 한 번 척도의 신뢰도가 인정할

표 4. 성별과 연령별 참가자의 사례수와 백분율

	남자	여자	전 체
10대 이하	2(0.93)	12(5.63)	14(6.57)
20대	30(14.08)	40(18.77)	70(32.86)
30대	12(5.63)	48(22.53)	60(28.16)
40대	17(7.98)	36(16.90)	53(24.88)
50대 이상	8(3.75)	8(3.75)	16(7.51)
전 체	69(32.39)	144(67.60)	213(100.0)

만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이 두 개 나타나서 모든 요인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작은 값을 보인 문항을 줄여서 요인 당 문항수를 4개로 줄인 축약형 척도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도 $\alpha = .8540$ (표준자료의 경우엔 $\alpha = .8491$)로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20문항으로 구성된 축약형 척도의 신뢰도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적합도

확인연구를 통하여 탐색연구보다 우수한 구매행동유형 요인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추출된 요인들은 연구 1과 동일하게 “회피형”, “합리형”, “의존형”, “직관형”, 및 “즉흥형”을 포함한 5개의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그런데 직

관형과 의존형에 해당하는 문항들 중에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이 있었다. 직관형을 구성하는 “나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옳다고 느끼는 결정을 내린다.”와 즉흥형을 구성하는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처음 생각난 것으로 결정을 한다.”의 요인부하량이 일반적으로 인정할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다. 특히, 즉흥형을 구성하는 문항은 연구 1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과 척도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각 요인들을 구성하는 문항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이는 문항들을 제거한 축약형 척도를 제안하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15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20문항으로 구성된 축약형 척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SAS9.2를 이용하여 공분산매트릭스를 추출하여

표 5.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공분산 매트릭스

Q19	0.77	0.63	0.52	0.54	0.16	0.20	0.17	0.13	0.20	0.11	0.35	0.15	0.02	0.16	-0.01	0.12	0.29	0.27	0.01	0.39
Q21	0.63	0.89	0.58	0.54	0.21	0.21	0.18	0.18	0.27	0.13	0.34	0.12	0.08	0.19	0.01	0.17	0.28	0.28	0.01	0.40
Q06	0.52	0.58	0.90	0.55	0.17	0.18	0.15	0.15	0.23	0.08	0.23	0.12	0.10	0.11	-0.01	0.21	0.20	0.26	-0.06	0.34
Q14	0.54	0.54	0.55	0.91	0.14	0.22	0.17	0.11	0.18	0.16	0.30	0.12	0.06	0.15	0.03	0.22	0.30	0.31	0.02	0.32
Q13	0.16	0.21	0.17	0.14	0.53	0.28	0.28	0.25	0.08	-0.01	0.11	-0.03	0.06	0.13	-0.06	0.12	0.25	0.21	0.07	0.23
Q25	0.20	0.21	0.18	0.22	0.28	0.57	0.25	0.27	-0.02	-0.01	0.07	-0.06	0.07	0.09	-0.07	0.11	0.17	0.22	-0.00	0.17
Q11	0.17	0.18	0.15	0.17	0.28	0.25	0.46	0.25	-0.01	-0.05	0.04	-0.06	0.04	0.17	-0.07	0.15	0.24	0.22	0.08	0.15
Q07	0.13	0.18	0.15	0.11	0.25	0.27	0.25	0.57	0.01	0.01	0.08	0.01	0.03	0.10	-0.01	0.14	0.19	0.19	0.03	0.19
Q22	0.20	0.27	0.23	0.18	0.08	-0.02	-0.01	0.01	0.61	0.30	0.33	0.24	0.04	-0.02	0.04	0.06	0.14	0.10	0.10	0.19
Q10	0.11	0.13	0.08	0.16	-0.01	-0.01	-0.05	0.01	0.30	0.62	0.30	0.25	-0.02	-0.03	0.05	0.01	0.08	-0.02	0.01	0.04
Q18	0.35	0.34	0.23	0.30	0.11	0.07	0.04	0.08	0.33	0.30	0.73	0.28	-0.01	-0.01	-0.06	0.08	0.20	0.16	0.01	0.20
Q05	0.15	0.12	0.12	0.12	-0.03	-0.06	-0.06	0.01	0.24	0.25	0.28	0.46	-0.03	-0.06	0.01	0.04	0.04	0.03	-0.02	0.07
Q01	0.02	0.08	0.10	0.06	0.06	0.07	0.04	0.03	0.04	-0.02	-0.01	-0.03	0.54	0.36	0.22	0.22	0.16	0.25	0.13	0.10
Q16	0.16	0.19	0.11	0.15	0.13	0.09	0.17	0.10	-0.02	-0.03	-0.01	-0.06	0.36	0.88	0.28	0.30	0.34	0.45	0.20	0.32
Q12	-0.01	0.01	-0.01	0.03	-0.06	-0.07	-0.07	-0.01	0.04	0.05	-0.06	0.01	0.22	0.28	0.65	0.18	0.09	0.12	0.11	0.09
Q03	0.12	0.17	0.21	0.22	0.12	0.11	0.15	0.14	0.06	0.01	0.08	0.04	0.22	0.30	0.18	0.83	0.26	0.21	0.06	0.17
Q09	0.29	0.28	0.20	0.30	0.25	0.17	0.24	0.19	0.14	0.08	0.20	0.04	0.16	0.34	0.09	0.26	0.79	0.51	0.31	0.40
Q15	0.27	0.28	0.26	0.31	0.21	0.22	0.22	0.19	0.10	-0.02	0.16	0.03	0.25	0.45	0.12	0.21	0.51	0.82	0.26	0.43
Q24	0.01	0.01	-0.06	0.02	0.07	-0.01	0.08	0.03	0.10	0.01	0.01	-0.02	0.13	0.20	0.11	0.06	0.31	0.26	0.69	0.15
Q20	0.39	0.40	0.34	0.32	0.23	0.17	0.15	0.19	0.19	0.04	0.20	0.07	0.10	0.32	0.09	0.17	0.40	0.43	0.15	0.70

LISREL8.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용된 공분산 매트릭스는 표 5와 같다. 척도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는 간명성(parsimony)이다. 보다 적은 수의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는 것은 현장과 실무에서 매우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간명한 의사결정유형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 1과 연구 2에서 얻어진 결과에 기초하여 요인부하량이 높은 네 개의 문항만으로 구성된 축약형 척도를 제

안하고 이것을 공분산구조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검토하였다.

5개의 의사결정유형 요인들을 20개의 문항들로 알아보는 축약형 의사결정유형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정된 확인적 요인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square(df=160)=311.77, $p < .001$, GFI=0.87, AGFI=0.83, NFI=0.90, NNFI=0.94, CFI=0.95, RMR=0.05, RMSEA=0.06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들이, .90을 기준으로 삼을

표 6. 최종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요인들과 문항들

요인	문항
회피형	Q19 나는 언제든지 가능한 한 의사결정 하는 것을 연기한다.
	Q21 나는 자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룬다.
	Q06 결정을 내리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룬다.
	Q14 나는 압박을 받을 때까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한다.
합리형	Q13 결정을 내릴 때, 나는 구체화된 목표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안을 고려한다.
	Q25 나는 대부분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Q11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주의 깊게 생각을 한다.
	Q07 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의존형	Q22 만약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쉬워진다.
	Q10 내가 중요한 결정에 직면할 때,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Q18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Q05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활용한다.
직관형	Q01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나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Q16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나의 본능에 의존한다.
	Q12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나의 내적 느낌과 반응을 믿는다.
	Q03 결정을 내릴 때, 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는 것보다는 그 결정이 옳다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흥형	Q09 나는 일반적으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다.
	Q15 나는 자주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다.
	Q24 나는 빨리 결정을 내린다.
	Q20 나는 자주 계획이나 준비 없이 얼떨결에 결정을 내린다.

때 조금 낮은 GFI와 AGFI를 제외하고, 다른 적합도 지수는 모두 인정할만한 값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는 제안된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요인구조가 타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축약형 한국판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요인들과 문항들을 표 6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요인마다 4개의 측정문항으로 구성된 5개의 요인이 확인되었고, 선행연구들과 일관되게 회피형, 합리형, 의존형, 직관형, 및 즉흥형으로 명명하였다.

논 의

전체적으로, 축약형 한국어판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과 연구 2를 통하여, 내적일관성계수로 살펴본 신뢰도 검증 결과도 우수하고,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그리고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뿐만 아니라,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하여 검토된 축약형 한국판 의사결정유형척도의 적합도도 인정할 만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결정유형은 합리형, 직관형, 회피형, 의존형 및 즉흥형을 포함하여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사결정방식과 그 특성을 볼 때, 합리형은 범상황적으로 적응적인 행동특성을 보이는 의사결정유형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범적인 유형이다. 직관형과 즉흥형은 상황적 특성에 따라서 적응적일 수도 부적응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나 시간제약이 있는 소비 상황처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직관형과 즉흥형은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방식보다 적응적 특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피형과 의존형은 상황에 상관없이 부적응적인 의사결정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소비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판단과 선택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인데, 자신의 의사결정유형을 확인하고, 해당 의사결정유형의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신만의 원칙이나 규칙을 세워서 실천한다면 보다 즐겁고 만족스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학문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를 국내에서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점은 앞으로 소비자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고자 하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판단과 선택을 포함하는 의사결정은 변화와 위기가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성들을 밝히고자하는 연구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의사결정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끝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소비생활에서 밝혀진 의사결정유형을 고려하여 인간관계, 팀 작업, 고객접점관리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한다면 보다 우수한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즉흥형 의사결정자나 의존형 의사결정자를 합리형 의사결정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전체적으로 오류를 줄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1의 논의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연

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비록 두 개의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두 개의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가능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보다 신중한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처럼, 연령에 따라서 의사결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Thompson, 2010), 각 연령대에 걸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인 소비자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제와 의사결정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마케팅적 실무에서의 활용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이나 차이를 밝혀줄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의 구매행동유형과 의사결정유형간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은 소비자를 이해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끝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接客 상황처럼, 양자가 만나는 경우에 각자의 의사결정유형에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유형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의사결정방식을 취하는 것이 점점관리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연구도 앞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남순현 (2009). 학습자의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사회적 쟁점의 분석과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승규 (1999). 소비자심리학. 서울: 학지사
- 남승규 (2005a). 소비자 자기조절 모형과 충동 구매 행동. 한국심리학회: 소비자광고, 6(3), 6-77.
- 남승규 (2005b). 자기조절모형, 소비자 및 광고. 광고학연구, 6(3): 61-77.
- 남승규 (2009). 소비자분석. 서울: 학지사.
- 남승규 (2011). 개인의사결정역량과 조직생산성 및 조직창의성간의 관계.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30(1), 151-173.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Arroba, T. (1977). Styles of decision-making and their use: An empirical stud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5(2), 149-158.
- Beckwith, H. (2011). *Unthinking*. New York: Grand Central Publishing.
- Conteh, N. (2009). The hypothesis testing of decision making style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Journal of Technology Research*, 1-17.
- Crawford, C. B. (1975). Determining the number of interpretable factors. *Psychological Bulletin*, 82, 226-237.
- Eidles-Maoz, M. (2006). *Personality and decision making styles: The effect of hardness and spontaneity*. Thesis of Roosevelt University.
- Friedenberg, L. (1995). *Psychological testing: Design, analysis, and use*. Allyn & Bacon.
- Gambetti, E., Fabbri, M., Bensi, L., & Tonetti, L. (2008). A contribution to the Italian validation of the General Decision Style Invent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842-852.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eppner, P. P., Hibel, J., Neal, G. W., Weinstein, C. I., & Rabinowitz, F. E. (1982). Personal problem solving: A descriptive study of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580-590.
- Johnson, R. H. (1978). Individual styles of decision making: A theoretical model for counsel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6(9), 530-536.
- Koeslag, J (1994). Koinophilia.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167(1), 55-65.
- Loo, R. (2000).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general decision making style invent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895-905.
- Mitchell, L. & Flin, R. (2007). Shooting decisions by police firearms officers. *Journal of Cognitive Engineering and Decision Making*, 1(4), 375-390.
- Osborne, D. G. (2010). *The relationship of goal-directedness, generalized trust, and manager's decision-making styles*. Doctorial Dissertation of Carpella University.
- Parker, A. M., Bruine de Burin, W., Fischhoff, B. (2007). Maximizers versus satisficers: Decision-making styles, competence, and outcomes.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2(6), 342-350.
- Phillips, S. D., Paziienza, N. J., & Ferrin, H. H. (1984). Decision-making styles and problem-solving appraisa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497-502.
- Scott, S. G. & Bruce, R. A. (1995). Decision-making style: The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a new measur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5(5), 818-831.
- Spicer, D. P. & Sadler-Smith, E. (2005). An examination of the General Decision Making Style questionnaire in two UK sampl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0(2), 137-149.
- Thompson, T. S. (2010). *The impact of locus of control on decision making styles of mid-level managers*. Doctorial Dissertation of Carpella University.
- Thunholm, P. (2004). Decision-making styles: Habit, style or both?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36(4), 931-944.
- Thunholm, P. (2008). Decision-making styles and physiological correlates of negative stress: Is there a rel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9, 213-219.
- Thunholm, P. (2009). Military leaders and followers-Do they have decision style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0, 317-324.
- Thurstone, L. L. (1947). *Multiple Factor Analysi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11. 10. 3.
수정원고접수일 : 2011. 11. 18.
게 재 결 정 일 : 2011. 11. 21.

Validation of General Decision Making Styles Scale

Eun-Joo Kim¹⁾ Jeong-IL Kim²⁾ Seung-Kyu Nam³⁾ Gilkwang Roh⁴⁾

¹⁾Division of Shopmaster & Business Administration, Woosong Information College

²⁾Dept. of Business Information Statistics, Daejeon University

³⁾Dept. of Industrial and Advertising Psychology, Daejeon University

⁴⁾Dep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and validate of scale for classification of decision making style. In first study that was exploratory study, 242 undergraduates were asked to answer Korean version of general decision making style(GDMS) scale(Scott & Bruce, 1995) and scale of decision making competency(Nam, 2005). Each scale was consisted of Likert 5 points scale. To examin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GDMS scale, data were analyzed by internal consistency,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 showed that internal consistency was high, that 5 factors were extracted and that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of decision making style with factors of decision making competency scale were high. Also, construct validity,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as well as reliability were accepted as recognized level. In second study that employed covariance structure model analysis as confirmatory study, 215 participants who include various ages were asked to fill out the shortened Korean version of GDMS that consisted of 20 items. Results showed that both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hortened Korean version of GDMS were high. Though items were reduced, internal consistency was still high and fitness indexe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were high. Finally, in addition to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mes and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General Decision Making Style(GDMS) Scale, Decision Making Style, Decision Making Competency, Shortend GDMS Scale, Validation Study*